

서호인의 '소설처럼'



그것이 사랑이었음을 -김세희 '항구의 사랑'

신예작가 김세희의 첫 장편소설 '항구의 사랑'은 목포를 배경으로 한 성장 소설이라고 볼 수 있다. 초등학교 입학식의 풍경에서부터 시작된 소설은 목포를 떠나 서울에서 대학에 다니는 주인공의 모습까지를 비교적 짧은 분량에 소홀하지 않게 다룬다.

이야기의 물결은 고등학교 시절에 가장 큰 흐름을 이룬다. 주인공인 '나'는 여자중학교를 졸업해 여자고등학교에 입학한다. 그는 단짝 친구를 사귀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가수를 좋아하기도 하며, 시험 스트레스도 받는 평범한 학생이다. 평범한 학생의 마음에 '사랑'이라는 특별한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닐 터. 소설은 제목답게 사랑에 찢쩍대는 주인공의 마음에 이입하여 목포의 이곳저곳을 떠돈다. '항구의 사랑'은 간단히 말해 목포에서 나고 자란 소녀의 첫사랑 이야기, 혹은 성장담이다.

그러나 이 소설은 그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없는 구석이 있다. 교회 오빠나 과

의 선생님, 혹은 옆 학교의 밀건 소년을 좋아할 법한 소녀들이 사랑하는 것은, 같은 학교의 소녀다. 중성적 매력에 있는 친구는 물론이고, 작은, 어린, 귀여운, 어른스러운, 유머러스한, 밝고 쾌활하거나 진중하고 겸손한.... 이무 말할 수 없는 각각의 특성이 개개의 매력이 되고 사랑의 이유가 된다.

그들은 사귀고 헤어진다. 밥을 같이 먹고 매점에 함께 가고 '팬픽'(자신이 좋아하는 스타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팬이 직접 쓴 소설)을 돌려 읽으며 고민과 일상을 나눈다. 그중 누구는 유행에 휩쓸려 우정과 허세가 혼재된 감정을 가졌을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누군가는 진짜 사랑을 했을 수도 있다. 여자적인 채로, 여자적인 상대를. 그것이 사랑인 줄 모르고 혹은 사랑이라고 믿으며.

성인이 된 주인공과 주인공의 동창들은 한때의 뜨거움에서 완전히 벗어난 듯하다. '나'는 서울에 와 새로운 친구를 사귀면서 '여대생'의 기준에 자기 자신을 맞춰 나간다. 하이힐을 신고 매사에 가

벼워지려 노력하며 친구들과 남자 이야기를 한다. 좋아하는 가수를 주인공으로 글을 쓰는 자신은 지워 버린다.

그러나 '그 엄청난던, 소녀들의 사랑 하려는 욕구'는 지우기 어렵다. '나'가 말하는 것처럼 '그때 다 미쳤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혹은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소설은 서서히 자신의 감정을 확인해 가는 '나'의 감정과 그것이 실패했음을 천천히 조각하는 '나'의 감각을 단번에 읽을 수밖에 없게 한다. 그리하여 우리가 가질 사랑의 가능성은 커진다. 우리가 나누었던 감정의 영역마저 확대된다. 그것은 특별한 것이었다. 그것도 사랑이었다.

소설 속 인물들은 모두 입사하는 관문을 거친다. 그리하여 고등학교 문을 나온 후, 대부분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산다. 하지만 그 전의 삶이 가짜일 수는 없다. 수능과 대학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세상은 말하지만 거기에도 사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실패와 상처가 있다. 그 시절을 지나쳐 온 우리는 어쩌면 지금 그 시

간을 통과하는 그들을 등급으로 줄 세우기에 급급하고 있는지 모른다. 좇대 없이 바뀌면서 늘 실패 중인 교육 제도로 그들을 제한하고 있다. 공정성이라는, 경쟁을 대전제로 삼아 그들을 사랑 같은 건 할 수 없는 존재로 치부하고 있다. '항구의 사랑'은 10대 후반의 서사를 입시 바깥의 것으로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게 꼭 소설에 국한되어야 할 일은 아닐 것이다.

답백한 문장 속에 슬며시 숨은 유머는 덤이다. 오랫동안 사랑할 수 있는 작가가 탄생한 순간이고, 그 순간을 읽을 수 있어 기쁘다. 게다가 목포라니! 유달산 아래 가옥들이며 구시가지의 옷가게들, 하강의 학원과 멀리 목포대교의 윤곽이 보이는 해변.... 서울과 그 근교가 아닌 장소가 이토록 생생하게 등장하는 소설을 오랜만에 만나니 더욱 반갑다. 거기에 또 청소년이 있고, 입시를 앞둔 학생이 있다. 그들에게도 첫사랑이 있다. 모두 미쳤었던,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었던.

기고

우리가 꿈꾸는 미래



이정희 한전 상임감사위원

1893년 시카고에서 콜럼버스의 미대륙 발견 400주년을 기념하여 만국박람회가 개최되었다. 주제는 '미국의 기술 발전과 세계의 미래.' 주요 이벤트의 하나로 미국을 대표하는 브레인 100명이 예측한 '100년 후 미국'이 발표되었다.

'인류는 자유롭게 하늘을 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북미, 중남미를 모두 지배하는 세계의 초강대국이 될 것이다. 사회는 풍족해지고, 남녀평등 사회, 균등한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며, 문맹과 범죄는 사라질 것이다. 각 가정에 TV와 전화기를 합친 '텔레포드'라는 것이 갖춰지고, 앉은 자리에서 세계 어느 곳과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로는 실현 불가능한 꿈이나 몽상에 불과했지만, 그 꿈의 상당 부분은

1990년대에 실현되었다. 이처럼 인류는 항상 먼 미래를 상상하며 꿈꿔왔고, 그렇게 상상한대로 발전해왔다.

이정문 화백이 1965년에 그렸던 대한민국의 '2000년대 생활의 이모저모'란 상상도에는 휴대전화, 개인용 컴퓨터, 전기차, 태양광 주택, 무빙 워크 등 당시는 초등학교생이나 해봄 직한 황당무계한 상상이 그려졌지만, 그 대부분도 오늘날 모두 현실화되었다. 이정문 화백이 2015년 빛가람 국제전력 기술 엑스포(BIXPO)에서 공개한 2050년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하늘을 나는 자동차로 출퇴근 하고, 주차는 배란다에 하며, 순간 이동을 통해 어디든 자유로이 갈 수 있다. 바다 속 주거 생활이 가능해지고, 만물제작자가 만들어져 먹고 싶은 음식은 언제 어디서든 먹을 수 있게 된다. 기계 어도보의 등장으로 장애인은 없어지고, '웨어러블'과 '뇌파헬멧'은 일상의 필수품이 되며, 우주 여행은 보편화되어진다. 전기는 우주 발전소에서 만들어지고, 송전용 위성을 거쳐 모든 전자 제품은 무선으로 상시 충전이 된다."

그렇다면 에너지 분야의 50년 후, 100

년 후 모습을 상상해 보자.

'마을이나 건물마다 태양 전지나 풍력 터빈 같은 소형 발전 설비가 들어서고, 송전 첩합은 사라진 지 오래다. 무선 충전이 보편화되면서 온 도시를 뒤덮은 전력선도 사라졌다. 거리의 소음이나 차량의 진동, 체온까지 전기 에너지로 바뀌어 언제 어디서든 전기를 가져다 쓸 수 있다. 가전기기들은 에너지 저장 장치에 저장된 전기를 무선으로 받아 가동되기 때문에 전원 코드가 필요 없어지고, 휴대용 전자 제품에서 배터리가 사라졌다. 전기만 해도 사람의 운동 에너지로 휴대폰이 충전되고, TV를 신문처럼 말아서 들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 펼쳐서 본다. 거리는 전기차와 수소차가 돌아다니고, 주유소 자리는 전기충전소, 수소충전소가 대체한다. 건물 자체가 태양광 발전소 역할을 한다. 각 가정에 ESS는 필수품이 되었고, 누구나 전기를 생산하고 파는 프로슈머(prosumer)는 일상화된 일이다. 우주에 떠있는 태양광 발전소가 만든 전기는 무선 송신 시스템에 의해 24시간 지구로 전송된다. 미세먼지 예보는 이제 역사책에서나 볼 수 있게 되었다.'

현재의 기술 혁신과 발전 속도를 생각한다면 모두 가능한 미래가 아닐까? 그러나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와 함께 하는 우리의 미래는 모두의 간절함과 노력이 더해질 때 비로소 꿈이 아닌 현실이 될 것이다. 대기 오염과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은 날로 가중되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한 강력한 요구에 직면해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의 생존의 문제로, 세계적인 추세이며,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이다.

한전은 국내 대표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강구 중이다. 재생 에너지 중심의 과감한 전력 설비 투자, 대규모 청정 에너지 수송을 위한 동북아 수퍼그리드 구축 등도 구상하고 있다. 에너지 신사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 한전 공대 설립 추진 등 에너지 인재 육성을 위해서도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미래(未來)의 한자 뜻을 그대로 풀어보면, '아직 오지 아니함'이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에 우리가 상상하고 꿈꾸는 대로 만들 수 있다. 미래는 꿈꾸는 자의 것이다.

의료칼럼

명절 피로 풀기



김민성 수원원연한방병원 병원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온 가족이 명절 음식을 함께 즐기며 온정을 쌓을 수 있는 풍성한 한가위를 늘 기다려 온 것이다. 하지만 최근 현대인들에게는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명절 후 갖가지 질병을 앓는 명절 증후군까지 생기게 됐다. 즐거워야 할 명절이 주부 입장에서조차 준비 과정에서부터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명절 이후에는 연휴 기간 쌓인 피로가 겹쳐 환절기 감기나 몸살을 앓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 이 때문에 심한 경우에는 명절이 시작되기도 전에 두통에 시달리는 등 명절 피로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 같은 명절 증후군을 없애기 위해서는 온 가족이 협력해 서로의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명절에는 평소보다 장시간 운전운을 하게 되고 기름진 음식을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철저한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 명절에는 고향으로 가기 위해 장시간 이동하면서 피로가 쌓이기 시작해서 과식이나 과음, 불규칙한 수면 시간 등으로 인해 기력이 떨어지고 스트레스가 쌓이기도 쉽다.

장시간 차를 타고 이동 중에 피로를 줄이려면 최대한 편안한 옷차림을 하는 것이 좋다. 특히 몸을 압박하는 불편한 옷차림은 기혈의 순환을 둔화시켜서 소화 불량, 두통, 피로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딱 맞는 옷보다는 여유가 있는 옷을 입는 게 좋다. 또한 밀폐된 차 안에서 지나치게 냉난방을 켜놓는 경우 눈이 뻑뻑해지고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은 물론, 다양한 호흡기 질환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때는 환기를 자주 시키고, 중간 중간에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이동 중에 머미를 한다면 손바닥을 위로 하고 손목을 굽혔을 때 손목

주름의 중심에서 팔 쪽으로 손가락 두 마디 정도 올라온 지점인 '내관'을 눌러주면 불편한 속을 편안히 다스려줄 밑미를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다. 특히 기름지고 칼로리가 높은 명절 음식은 소화 불량을 일으키기 쉽다. 속이 불편할 경우 마를 갈아서 즙을 마시면 좋다. 마는 소화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소화 불량으로 불편한 속을 다스려주며, 원기 회복에도 좋다.

명절 기간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 스트레스가 쌓이기도 쉽다. 뒷목이나 어깨가 빠근하고 머리가 팍 조이는 듯한 긴장성 두통으로 고생하기 쉬운데, 이런 경우에 머리와 목을 따뜻하게 해주면 효과가 있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간단하게 스팀 타월을 목이나 어깨 부위에 올려서 혈액 순환을 촉진해주는 것도 좋다. 여기에 따뜻한 국화차 한 잔을 곁들이면 심장에 쌓인 열을 내릴 수 있으며, 두통이나 가슴의 답답함을 해소하는 데 좋다. 명절에는 숙취로 고생하기 쉬운데 콩나물이나 바지락, 배, 찜 등의 음식으로

숙취를 제거해주는 것이 좋다. 술을 많이 마셔 속이 쓰리고 아플 때는 손등을 위로 했을 때 엄지와 검지의 뿌리 뼈가 겹치는 부분 중 오목하게 들어간 '합곡혈'을 지압해주는 것이 좋다.

술을 마신 뒤 뜨거운 열이 올라서 목이 타고 머리가 아플 때는 무릎 뼈에서 네 손가락의 폭만큼 내려간 부위에서 바깥쪽 부분에 위치한 '족삼리'를 지압해주면 좋다. 위로 상승하는 열기를 가라앉혀 주고 답답한 속을 풀어주는 등 숙취로 인한 증상 완화에 효과적이다. 다이어트 중인 사람이라면 명절에 적당한 식사 조절이 필요하기 때문에 포만감을 주는 채소를 충분히 섭취한 뒤, 다른 음식을 먹어서 식사량을 줄여주는 것이 좋다.

또한 명절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는 모처럼 만나는 것인 만큼 서로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삼가고, 배려해주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좋다. 사소한 준비 과정에도 서로 하겠다는 자세를 보여 일도 줄이고, 마음도 편하게 하는 분위기가 중요하다.

社說

도시철도 2호선 착공 대중교통 혁신 전기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공사가 마침내 오 늘부터 시작된다. 지역 사회가 재정 부담과 건설 방식 등 둘러싸고 찬반으로 갈려 논란을 빚은 지 17년 만에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는 것이다.

광주시는 오늘 오후 3시 광주시청 야외 음악당에서 도시철도 2호선 기공식을 개최한다. 지난해 11월 시민 공론화를 통해 건설을 확정된 뒤 환경·교통 영향 평가와 예산 확보 등 모든 행정 절차를 마치고 첫 삽을 뜨게 됐다. 총 연장 41.84km의 타원형 코스인 도시철도 2호선에는 2조 176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공사는 전체 구간을 1~3단계로 나누어 진행된다. 1단계는 시청·상무역·금호지구·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남광주역·조선대·광주역 등을 거치는 17km로 2023년 개통된다. 또 전남대와 일곡·첨단·수완지구를 경유하는 2단계(20km)는 2024년, 백운광장에서 효천역까지 3단계(4.84km)는 2025년 개통이 목표다.

광주 5개 자치구를 모두 경유하는 순환선인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마무리돼 기존 1호선 및 시내버스와 연결되면 시내 어느 곳이든 대중교통을 이용해 30분이면 오갈 수 있는 교통 환경이 구축된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이 경우 현재 3.6%인 도시철도 수송 분담률이 12.1%까지 높아지고, 역세권 개발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위한 구도심과 신도심 간 균형적인 발전을 견인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하지만 향후 5년간 도심 곳곳에서 공사가 이어지면서 교통 혼잡과 시민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시민들 역시 미래 교통 복지를 위해 감수해야 할 불가피한 과정인 만큼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 아울러 광주시는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도시철도와 시내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대중교통 체계를 획기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광주·전남 치매 사회적 안전망 대폭 보강을

전남 지역의 치매 환자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극히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 우려를 낳고 있다.

광주시·전남도 및 보건 당국의 집계 결과 지난해 말 기준 65세 이상 광주·전남 지역 노인 가운데 치매 환자 수는 각각 1만7809명, 4만7200명으로 추정된다. 최근 3년간 치매 노인 실종 신고도 1866건이나 됐으며 매년 증가 추세다. 광주의 치매 노인 실종 신고는 2016년 292건, 2017년 304건, 2018년 367건, 전남은 2016년 263건, 2017년 304건, 2018년 338건이었다.

치매 노인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배회감지기(실시간 위치추적장비) 보급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 배회감지기는 손목시계 형태로 GPS(위성항법시스템)가 탑재돼 보호자가 스마트폰으로 착용자의 위치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착용자가 일정 거리를 벗어나면 보호자 스마트폰에서 경고음이 울리는 기능도 갖추었다.

실종으로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환자를 위한 장비인 것이다.

하지만 배회감지기 보급률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광주·전남에 거주하는 치매 환자에게 보급된 배회감지기는 각각 292개, 1467개에 불과하다. 치매 환자 수 대비 배회감지기 지급률도 광주 1.6%, 전남 3.1%에 불과하다. 치매 노인 실종 예방을 위한 배회감지기는 2016년 292건, 2017년 304건, 2018년 367건, 전남은 2016년 263건, 2017년 304건, 2018년 338건이었다.

치매는 환자는 물론 가족 등 주변 사람들의 삶의 짐을 떨어뜨리고 심지어 가정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광주·전남 지자체는 치매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비인 '배회감지기' 보급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치매 환자 관리를 위한 의료 인프라 확충 등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왕이 절대 권력을 쥐었던 봉건시대에 그 권력을 공유하며, 어깨를 나란히 했던 신하들이 꽤 있었다. 그 대부분은 주변의 빗발치는 탄핵과 이간질, 왕의 역린(逆鱗)을 건드리는 실수나 관리 실패 등으로 중도에 오히려 대역죄인으로 몰려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대표적인 사례로 춘추전국시대 오나라 부처와 오자서, 조선 중종 때의 조광조가 있다.

사명을 가진 군주는 국가 부흥, 영토 확장 등 현실적인 목표와 함께 이상적인 정치의 실현을 위해 인재를 찾아 나선다. 그 인재가 자신을 도와 국가를 공헌하면 관직을 높이고 부귀영화를 보장해 주는 것은 당연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권력을 나누고 끝까지 믿음을 이어 간 신하를 고굉지신(股肱之臣)이라고 한다. 팔다리와 같은, 즉 군주와 한 몸이라는 의미다.

군주가 바람직한 신하를 만나거나 신하가 자신을 알아주는 군주를 만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꽤나 어려웠던 것 같다. '세난(說難)'에서 군주를 설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설명한 한비자는 군주의 믿음을 얻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지 못했다. 문재인정부에서 사법 개혁을 이끌고 있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야당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의 조 후보자에 대한 신임은 여전히 변하지 않은 듯하다. 조 후보자와 그 가족의 과거 행적에 대한 실망이 크긴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개혁 조치를 마무리하는 데 있어 그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문 대통령과 조 후보자의 의리에 대해 후세는 어떠한 평가를 내릴지 사투 궁금하다. /유현성 정치부 부장 chadol@

군신유의

| | | | |
|---|-------------------|---------------------------|----------------|
| 光州日報 | | The Kwangju Ilbo | |
| 시장·발행·편집·인쇄인 김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 | | |
|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 |
|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기사 직구)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 | | |
| 편집국안내 | (대표 FAX 222-4918) | 경영지원국 | 220-0515 문화사업국 |
| 220-0649 | 220-0661 | (FAX 222-8005) | (FAX 222-0195) |
| 220-0632 | 220-0633 | 기획관리국 | 227-9600 |
| 220-0663 | 220-0692 | (FAX 222-0195) | (FAX 222-0195) |
| 220-0652 | 220-0694 | 디자인실 | 220-0536 |
| 220-0642 | | 서울지사 | 02-773-9331 |
| | | (FAX 02-773-9335) | |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 |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